



# 세계행복보고서 10년의 결과: 친사회적 사회가 행복한 국민을 만든다

허중호 부연구위원(삶의질데이터센터장)

## 2023년 한국의 행복 수준

### ◇ 2023년 3월 20일 “세계행복의 날”에 세계행복보고서(World Happiness Report)<sup>1)</sup>가 발간됨

- 세계행복보고서는 유엔산하자문기구인 지속가능발전해법네트워크에서 매년 140여 국가를 대상으로 1개국 당 약 1,000명을 대상으로 행복과 관련된 전화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행복지수를 산출하고 순위를 매겨 발표함
- 어떤 조건 때문에 특정 국가나 사회가 행복한지를 알기 위해서는 국가와 사회 간의 비교연구가 필요하기 때문에 세계행복보고서는 이런 점에서 유일한 연구 결과임

### ◇ 한국은 행복 수준에 있어서 5.951점(0~10점 범위)으로 2023년 조사 대상 137개국 가운데 57위를 차지함

- 세계행복보고서의 행복 수준은 응답자가 자신의 삶에 대한 평가를 칸트릴 사다리 방식<sup>2)</sup>의 답한 값을 최근 3년(20~22년) 평균치로 계산하여 국제 순위를 표시함
- 2023 세계행복보고서에서 우리 국민의 평균 행복 수준은 5.951점으로, 지난해보다 2순위 높아졌고 점수도 상승하였음
- 2021년에는 5.845점(62위)→2022년 5.935점(59위)→2023년 5.951점(57위)으로 상승추세를 보임<sup>3)</sup>

[그림1] 2023년 한국의 행복수준 및 비슷한 수준의 국가들 (자료: 2023 UN세계행복보고서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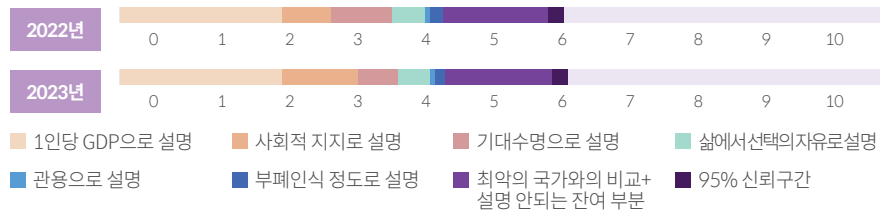
순위	국가	행복 점수	비고
49	브라질	6.125	95% i.c. for rank 34-61
50	엘살바도르	6.122	95% i.c. for rank 34-61
51	헝가리	6.041	95% i.c. for rank 38-66
52	아르헨티나	6.024	95% i.c. for rank 38-68
53	온두라스	6.023	95% i.c. for rank 36-68
54	우즈베키스탄	6.014	95% i.c. for rank 39-68
55	말레이시아*	6.012	95% i.c. for rank 38-68
56	포르투갈	5.968	95% i.c. for rank 40-68
57	대한민국	5.951	95% i.c. for rank 42-68
58	그리스	5.931	95% i.c. for rank 42-69
59	모리셔스	5.902	95% i.c. for rank 44-70
60	태국	5.843	95% i.c. for rank 45-75
61	몽골	5.840	95% i.c. for rank 48-74
62	키르기스스탄	5.825	95% i.c. for rank 49-74
63	몰도바	5.819	95% i.c. for rank 49-75
64	중국*	5.818	95% i.c. for rank 49-74

- 1) Helliwell, J.F., Layard, R., Sachs, J.D., DeNeve, J.-E., Aknin, L.B., & Wang S. (Eds.). (2023). World Happiness Report 2022. New York: Sustainable Development Solutions Network.
- 2) 자신의 행복 수준이 0~10까지 11단계의 사다리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점수로 자가 표시함
- 3) 국회미래연구원이 발표한 “한국인의 행복조사”의 최근 3개년 행복 추이는 감소하고 있음. 이러한 차이는 조사의 목적에 따른 조사 대상, 샘플 규모 및 조사 방법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음

### ◇ 한국의 행복 지수를 6가지의 지표<sup>4)</sup>로 설명해보면, 1인당 GDP 및 건강기대여명은 비교적 우수하나 ‘삶을 선택할 자유’의 측면은 여전히 취약함([그림 2])

- 1인당 GDP의 행복 수준 기여분은 지난해 1.851점에서 1.853점으로 다소 높아짐
- 건강기대수명의 기여분은 지난해 0.841점에서 0.603점으로 현저히 낮아짐
- ‘삶을 선택할 자유’의 기여분은 지난해 0.414점에서 올해 0.446점으로 다소 나아졌으나 여전히 비교적으로 취약함

[그림2] 2023년 한국의 행복지수 및 구성비 비교 (자료: 2023 UN세계행복보고서 재구성)



### ◇ 행복 수준이 높은 국가들로는 북유럽 국가들이 큰 변동 없이 상위권을 차지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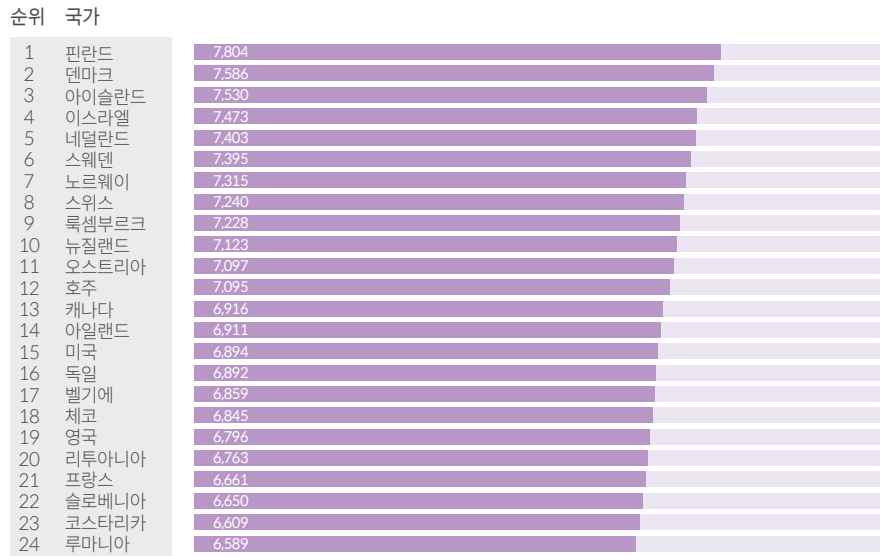
- 6년 연속 1위를 차지한 핀란드(7.804점), 2위는 덴마크(7.586점)와 3위 아이슬란드(7.530점), 6위 스웨덴(7.395점), 7위 노르웨이(7.315점) 등이 차지함
- 20위권 내 국가들은 사실 큰 변동이 없었으나 이스라엘은 지난해보다 5순위 상승해 4위를 차지하였고, 리투아니아는 2017년 52위 이후 지난 6년간 순위가 상승해 올해는 20위권에 포함되었음
- 지역별 1위를 살펴보면, 남미에서는 코스타리카(6.609점, 23위), 동남아시아에서는 싱가포르(6.587점, 25위), 중동권에서는 아랍에미리트(6.571점, 26위)가 차지함
- 우리나라 인근 국가들 중에는 대만(6.535점, 27위), 일본(6.129점, 47위), 중국(5.818점, 64위)이 차지함

### ◇ 세계적인 행복 불평등 현황을 제시함

- 이번 세계행복보고서는 작년의 삶의 평가와 감정의 장기적인 추세를 살펴본 것에서 이어서 올해는 국가별 행복의 불평등에 대해서 살펴봄
- 각 국가내에서 가장 행복한 순서대로 순위를 나열하여 중앙값 응답보다 높은 사람들의 평균 삶의 평가에서 중앙값 미만의 평균 수명 평가를 빼는 방식으로 계산됨
- [그림 4]에서 순위가 높을수록 행복 격차로 측정된 행복 불평등이 낮다는 것을 의미함
- 우리나라는 행복 격차가 3.274로 45위를 차지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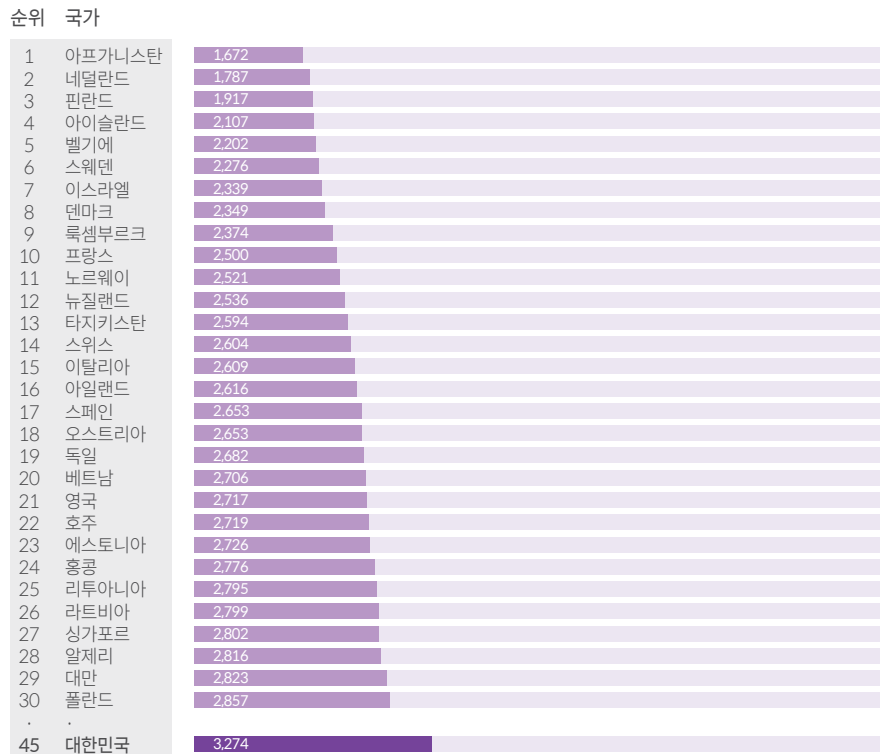
4) 1인당 GDP: 세계은행 세계개발지표 구매력 평가(PPP) 기준, 기대수명: 세계보건기구(WHO)의 기대수명 데이터, 사회적 지지: “문제가 생겼을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친척이나 친구가 있습니까?”, 선택의 자유: “당신의 삶에서 무엇을 할지 선택할 수 있는 자유에 만족합니까?”, 관용: “지난 한 달 동안 자신단체에 기부한 적 있습니까?”, 부패 인식: “이 나라의 정부(또는 기업) 전체에 부패가 널리 퍼져 있습니까?”

[그림3] 2023년 조사에서 행복도 상위를 차지한 국가들 (자료: 2023 UN세계행복보고서)



- 전 세계 행복불평등의 현황을 살펴보면, 국가 간에 행복격차 값은 큰 차이를 보이며, 가장 평등한 국가와 가장 평등하지 않은 국가 사이 간 격차는 5점 이내 범위에 속함
- 행복 수준을 보여주는 [그림 3]과 [그림 4]의 순위 사이에는 일반적으로 양의 상관관계가 있으나 다른 양상을 보이는 국가들도 존재함
- 국가내 행복 수준이 전반적으로 평등할수록 국민들은 더 행복하다고 느끼는 경향이 있음

[그림4] 2023년 행복 불평등 국가 30위권 순위 및 우리나라의 행복 격차 (자료: 2023 UN세계행복보고서)



## 친사회적 (pro-social) 국가가 행복한 국민을 만든다

### ◇ 어떤 국가나 사회가 국민을 더 행복하게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해 발간 10주년이 된 2023년 UN세계행복보고서가 그간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답을 제시함

- 먼저 어떤 개인이 더 행복한지에 대한 결론은 10년간 매우 일관되고 명확함

상호신뢰할 수 있고, 관대하며, 서로 돕고 사는가?

삶의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 자유로운가?

소득과 건강은 좋은 상태인가?

- 이런 질문들에 그렇다고 답할수록 더 행복한 개인이 될 가능성이 높고, 그런 개인들이 많을수록 더 행복한 사회가 될 가능성이 높음
- 이는 일찍이 아리스토텔레스가 내적 미덕과 외적인 조건을 가진 사람들이 유데모니아(eudaimonia)라고 명명한 선한 영혼의 상태, 쉽게 말해 행복에 다다른다고 말한 것과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음
- 그렇다면 이런 친사회적(pro-social) 특성을 가진 국민들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국가는 높은 수준의 유데모니아의 특성을 갖춘 국가, 즉, 국민들이 그러한 특성을 추구할 수 있도록 제도나 조건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
- 국가의 제도나 사회의 철학이 친사회성을 추구하지 않는데 개인이 친사회성을 추구하는 것은 개인적 손해의 위험이 있고 지속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조건과 환경을 조성하는 사회가 필요함
- 행복을 언어적 수사가 아니라 국가나 사회의 실질적인 목표로 삼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음
- 우리나라는 외적인 조건인 소득과 건강에 있어서 타 국가보다 단시간에 큰 성취를 이룬 나라이나 행복의 다른 조건에 있어서는 비교적 높은 수준이 아님
- 따라서, 경제적 안정과 높은 건강 수준이 바탕이 된 가운데 국민들이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서로 존중하고, 신뢰하며, 관대하게 서로를 용납할 수 있고, 인권, 평등과 정의 하에서 사회나 기관, 단체가 개인의 자유와 독립성을 존중하는 철학과 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음